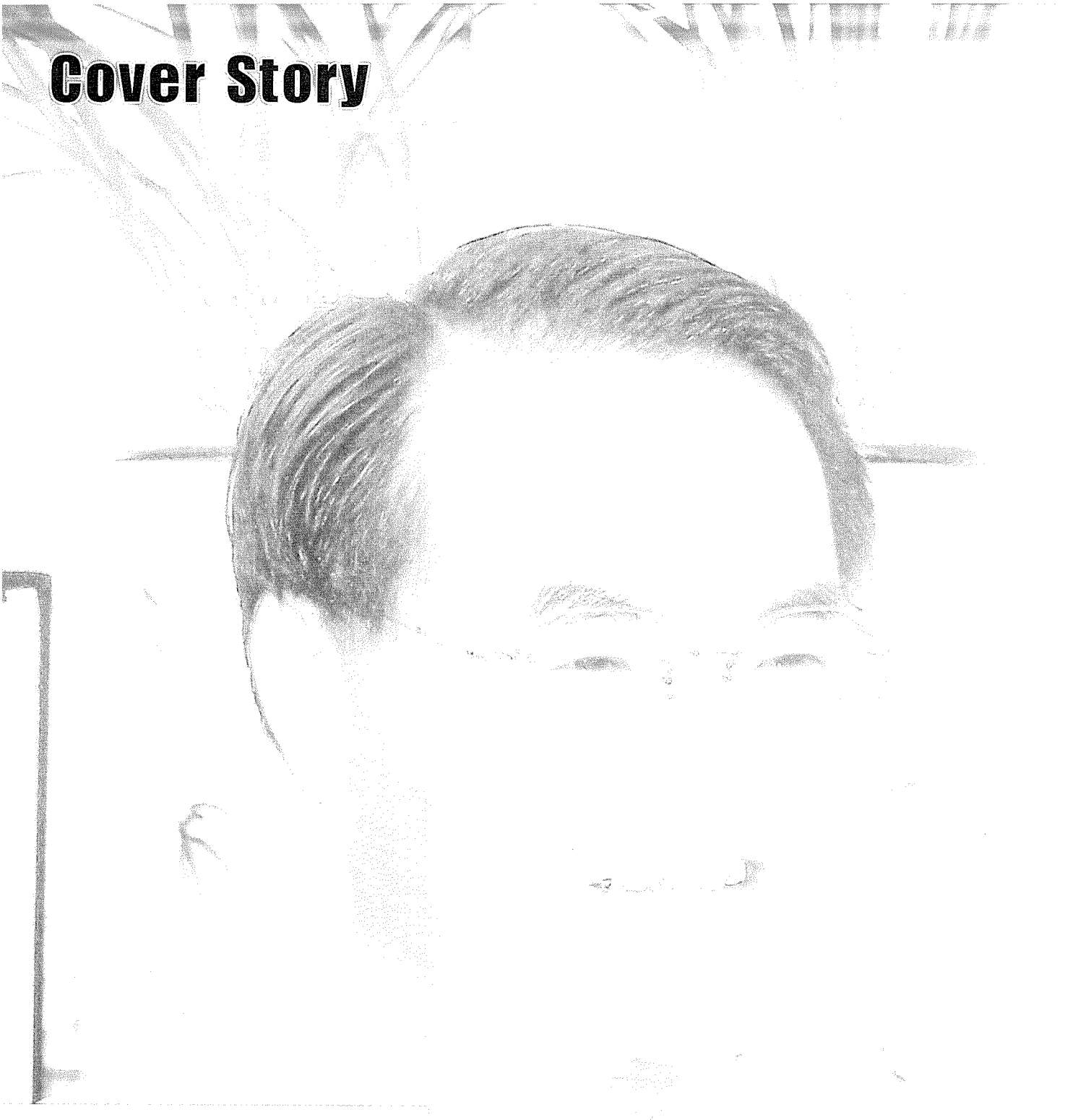
Cover Story



합동전자통신(주) 대표이사

"인간존중은 기업성장의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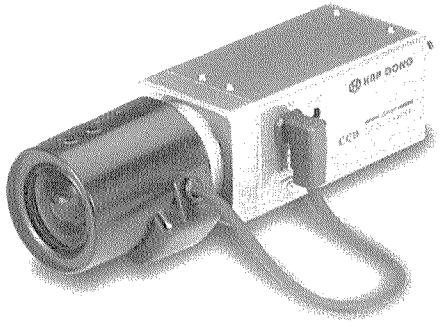
□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준한 성장 견인

하명용 회장이 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3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1년 설립한 합동전자공업사가 오늘날 이회사의 모태다.

오랜시간이 흘러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합동전자통신은 오랜전통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였다. 숱한 어려움을 꿋꿋하게 극복해 온 하명용 회장은 회사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는 장인정신만이 희망과 보람을 갖고 성장하는 길이라면서 밤잠 안자고 일한 고된 땀방울이 경영기반을 다지는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으며 회사 사옥을 보유한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남을 존중하는" 긍정적 마음을 갖고 화합된 인간존중 중심의 경영마인드로 "인화단결 친절봉사"에 뜻을 두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하명용 회장.

초창기에는 황무지나 다름없던 어려운 상황에서 전송통신공사면허를 79년에 취득하였으며 87년 통신공사 CCTV 설치 정부노임단가 제정과 유지보수 단가를 제정도록 촉구하여 업계발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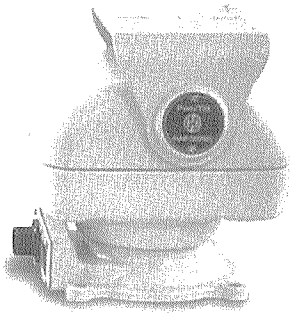
COLOR CAMERA

88년에는 국방부조달본부 장비납품업체로 등록되었고, 특히 국제올림픽 당시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식납품설치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한국전력 원자력발전설비 국산화 개발업체로 91년 선정되었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었으며, 해군군수사령부 종합등록이 되었다.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지속적 수주를 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95년에 설립하였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축적을 하였다.

품질인증 Q마크 획득과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였으며, 장비의 설계, 개발, 제조, 설치, 설비 등 ISO-9001 국제인증 규격을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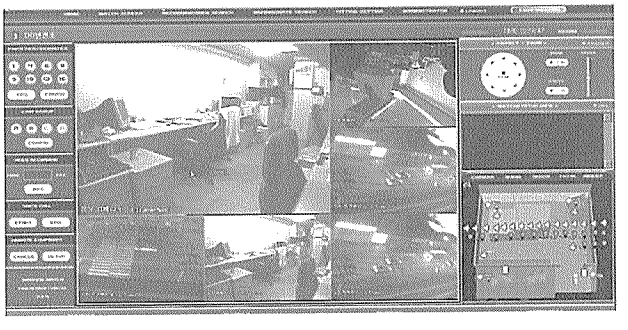
□ 국내 최초로 첨단 전자제어 장비 개발에 성공



PAN/TILT DRIVE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첨단장비 개발업체로 인정받아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33년 외길로 걸어온 하회장은 전자에 흥미가 있어 대학시절에는 전자사전을 암기할 정도로 탁월한 자질을 발휘하였으며, 국제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하회장은 일이 좋아서 사업도 하게 되었다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신기술개발자금과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오랜전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하기 힘든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집약형 첨단전자제어 장비개발을 국내최초로 성공시켰으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통신설계 업체 자격취득과 시스



템통합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자격 등록이 되었다.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 신용과 신뢰가 중요

외국 여러 우수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하여 눈앞에 이익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장비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각종 전시회 참가로 우수한 장비를 널리 알렸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첫 번째가 신용과 신뢰이며 두번째 세번째도 신용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하회장의 굳건한 마음이다.

정부규제완화 조치로 지나친 개방은 과당경쟁이 되어 업계의 난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복권당첨식 무작위입찰제도" 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술력 있는 우수업체라도 운에 맞겨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건도 수주 못하여 애써 투자할 필요 없는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획일성으로 기업유지가 매우 힘들어 경제성장이 심각하게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적당히 놀고 편하게 살자는 풍조가 더욱 경영을 어렵게 하는 일이지만 고생을 위해 태어난 것을 우연한 기회에 느끼어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면서 "바람직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근복적인 해결책"을 말하기도 했다.

[국가발전의 심각한 고질적 저해요소는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심이며 부조리와 부패의 주된 원인입니다. 경제대국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성공의 "숨은 노하우"는 유아기(어린새싹)에 "남을 존중하는 긍정적 마음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이 최선된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 과당경쟁 풍토는 성장의 한계 노출

우리나라가 잘살기 위하여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거에는 저임금으로 상품 경쟁력이 있어 수출이 가능했고, 역사를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 세계가 놀랄정도로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여 우리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IMF로 경제불황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부 선진국보다 고임금이면서 생산성과 근면성은 오히려 떨어졌고 열심히 노력하며 근면성실하게 살고져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편하게 살자는 풍조가 되어 전문성 결여와 이직자가 빈발하고 노동의 건전과 존엄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지나친 창업열풍과 과당경쟁으로 영세성을 면할 수 없어 기업유지가 어려워 도산이 속출되는 가운데 기성세대는 소신과 긍지를 잃고 상황에 따라 룰과 원칙을 수시로 바꾸는 근시적 안목과 무사안일한 책임회피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런 풍토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라도 성장에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잘 되어야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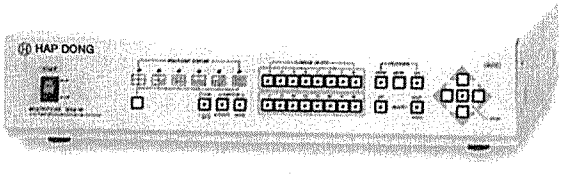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희망; 남을 존중하는 인성을 심어 주어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전인교육이 무너졌으며,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독선적 이기심 때문에 인륜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잘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을 좋아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심은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불신풍조는 신뢰상실과 희생정신이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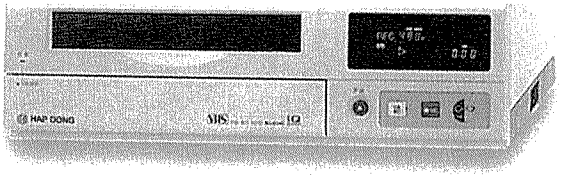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주의의 양심을 저버린 타락된 사회는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본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며, 룰과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모래알처럼 개성이 각각 드세여 단합이 안되고, 하던일도 멍석 펴놓으면 안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전분야에 걸쳐 남을 존중하지 않는 불협화음된 이기심은 부정, 부패, 부조리가 관례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통하여 모략과 음모의 배신속에 당파싸움의 혼란스런 내분으로 국가도약의 외국진출을 못하고 흥망성쇄가 반복된 악순환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심이 고질적 주된 원인입니다.



MULTIPLEXER



TIME LAPSE V.C.R

이것은 바람직한 나라를 위한 뜻에 정면으로 역행되는 일이며, 세계로 뻗어가는 성장의 원동력을 가로막고 있는 난맥상입니다. 어릴적 인성교육은 어느 학교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될 수 밖에 없듯이 유아기에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초등교육부터 대학까지 훌륭한 지식과 기술교육을 아무리 투자하여도 밑빠진독 물붙기나 모래위 집짓기와 같은 시행착오가 되어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이 어릴때 긍정적 인성을 심은 후 훌륭한 지식과 기술교육 접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학계의 전분야에 걸쳐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망국적 병폐가 이기심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정교육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나무는 바로 잡을수 있지만 큰나무는 바로 잡으수 없습니다. 사람도 어릴때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 잠재의식이 되어 자란 후에 겉은 바뀌지만 내재된 형질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미물인 연어도 죽을때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내재된 능력이 있듯이, 북한에서 의식화 탁아소 사상교육이 죽을때까지 남는 이치와 같이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단합과 화합이 안되는 이기심 제거가" 어릴적에 이루어져 남을 존중하는 긍정적 형질이 바탕에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존중하는 인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자진흥회에서 1985년 일본 산업시찰단 방문시 들은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공했던 "숨은 노하우"는 개인은 약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 저인력이든 고인력이든 각자 주어진 소속 업무에 대해 자신을 기꺼히 희생봉사하는 신의성실한 강력한 힘을 갖도록 일본인들은 어려서부터 이기심 제거를 위한 유아기(생후 6개월~5세 및 유치원 6~7세 포함)에 철저한 인성교육(정직, 신용, 질서, 협조, 친절, 존중, 화목)을 저소득층은 적은 교육비로 고소득층은 고액으로 한다면서 자식이 친절과 존중이 습관되어, 가정이 화목하고 속 썩는 일 없어 여성이 마음놓고 편한 직장생활을 한다 하였다.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인한 이기심은 심각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소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기 (어린새싹)에 이기심 제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의 최선된 해결책으로, 어느 학교 교육보다 가장 쉽고 적은 예산으로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고의 시설과 전문가로 하여금 "남을 존중하는 긍정적 인성을 꾸준히" 심어준다면 역사를 통하여 그동안 이룩하지 못했던 "부정, 부패. 부조리의 심각한 망국적 병폐가 치유되어"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훌륭한 나라가 저절로 될 것이라는 강조를 하였다.

□ 원격제어 웹장비 프로젝트 추진

하회장은 통신공사협회 운영위원 및 감사,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 한국라이온스크럽 이사 등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그동안 기여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SKT 본부장, 체신청장, 한국통신공사사장, 정통부장관, 내무부치안본부장, 상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표창에 이어 전국 280만 중소기업중에서 유일한 모범중소기업인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회장은 진정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유일한 오랜전통의 경영인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경제발전을 위하는 선두적 모범이 되는 경영자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전력공사 전국변전소 약 600개소에 관련 최첨단 무인화 감시 및 원격제어 웹(WEB) 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